

부안지역자활센터,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익산·완주·임실·순창 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로 국비 지원받아

전북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 17개 지역자활센터 중 최우수기관 1개 및 우수기관 5개가 선정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3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센터의 사업 역량 및 성과를 제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자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지역의 산업구조 등 특성에 따라 기관유형(도시형, 도농형, 농촌형)별로 분류하여 진행하며, 평

가지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70점)와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는 특성화지표(30점) 등 총 100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기관유형별로 최우수(상위 10% 이내), 우수(상위 10~30%), 보통(30~70%), 양호(하위10~30%), 미흡(하위10% 이내)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평가결과 전북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6개 기관이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 최하위 미흡기관은 하나도 없다.

특히, 부안지역자활센터는 모든 지표에서 고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전국 1위)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인센티브로 국비 1,88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한, 군산·익산·완주·임실·순창지역자활센터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1,260만원씩 지원받게 됐다.

특히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지역특화사업(고군산군도 자전거 유료 대여사업)에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28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에 지원받은 인센티브는 기관

운영비와 성과급, 직원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방문 등에 활용이 가능하고, 총액의 50%범위 내에서 직원별 업무 평가 후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승희 사회복지과장은 "일지리를 통한 복지가 가장 좋은 복지"라며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며, 저소득층이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관계자들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국회 각 당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헌약에 따른 헌법개정안 마련과 독립행정기관 형태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및 국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상황 종합추진 보고회

전북도는 24일부터 30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2017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상황 종합추진 보고회'를 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청 9개 협업부서와 대회 조직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 도교육청, 전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대회 준비상황과 협업과제 추진상황 등을 보고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입원·선수단의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20년 만에 전북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만큼 대회기간 방문객들이 전라북도를 영원히 기억하고 다시 찾도록 원활한 대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마을기업제품' 부산에서 1000만원 매출

'영호남 마을기업 네트워크 판매행' 부산 롯데백화점 개최... 11개 기업 참가

전북도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호남 마을기업들이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을 부산에서 시작했다.

전북도와 부산시의 영호남 40개 마을기업은 지역 간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영호남 마을기업 네트워크 교류 판매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판매행은 각 지역에서 엄선한 마을기업 우수 상품들이 시중가 대비 20~30%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우수 마을기업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특히 전북도는 행사부 평가에서 최우수 마을기업의 영예를 수상한 부안 '백련농장'과 익산 '함해국', 남원 '홍부마을' 등 11개 마을 기업이 참가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 1,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영호남 마을기업협의회는 롯데백화점과 상생 협약을 맺어 향후 유통 전문가로부터 제품의 품질 향상과 판매·홍보전략 등의 교육을 받고 백화점 입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가한 마을기업대표들은 "이번 판매행사가 영호남 마을기업들의 지역 간 소통과 상생협력 및 마을기업 제품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역 간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새만금 신시가지에서 개최된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에 도내 10개 마을기업이 참가해 1,100만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새만금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전북의 우수 마을기업 제품을 알린 바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생태관광 가능성 보인다

'그린웨이 환경축제' 서 다양한 행사... 3000여명 참여

전북도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도청광장에서 열린 제10회 그린웨이 환경축제에서 '생태관광 1번지 전라북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메인 행사장에서는 시군별 생태관광지의 특성을 살린 8개의 체험부스가 펼쳐져 이틀간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3,000여명이 넘게 참여해 큰 인기를 얻었다.

도의 생태관광지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손수 그린 생태마을 지도 전시회가 열려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정읍시 부스에서는 내장산 생태관광지 내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을 부채에 그리는 체험행사가, 남원시 부스에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물방개, 장수풍뎅이, 애벌레 등 살아있는 곤충체험과 더불어, 생태교육 O,X퀴즈, 물방개 레이스와 곤충집 만들기, 표본만들기 등의 체험이 열렸다.

순창, 고창, 임실, 완주, 장수 등

도내 군 지역 홍보부스에서도 폐와인병을 활용해 집안의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줄 캔들 만들기, 애벌레 모양을 귀엽게 캐리커화한 라바와 미니언즈 머리핀 만들기, 태조 이성계가 조선건국의 기운을 받아 소원이 이뤄진다는 상이암을 모티브로 나무에 직접 소원을 써서 소원판에 거는 체험행사, 야생화와 풀을 이용한 꽃다발 만들기,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의 깃대종을 형상화한 탁본 손수건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홍보부스 내에 장수와 완주에서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오미자 슬러시와 개복숭아 효소 음료를 2,000잔 넘게 판매하며 작지만 지역주민의 소득과 함께하는 생태관광의 성공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특색 있는 아이템 발굴 및 업무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안내관 정비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오지마을 재난안전 점검수리반' 200세대 안전점검

전북도는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차원으로 지난 5월17일 진안읍 정주마을회관에서 '2017 오지마을 재난안전 점검수리반' 출범식을 개최한 이후 5월 31일까지 4개 시·군 200세대에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무료 안전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린나이코리아, 열관리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과 함께한 이번 안전서비스로 선정된 마을의 각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 토털 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철저한 시설 점검과 함께 재난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해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높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히 들었다.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 서비스'는 주거 기초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밀집 지역 마을에 재난안전 점검수리반이 직접 출동해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출범식을 개최한 진안군 정주마을에서는 점검수리반이 점검을 하는 동안 마을주민 51세대가 함께 모퉁이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등 하루를 마을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현장 점검

새만금개발청은 7일 공업용수도 건설현장(군산시 아미도)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8년 준공을 대비, 총사업비 변경 추진현황과 올해 재정집행 등의 행정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장마철 집중호우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했다.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조성과장은 "최근 기습(계절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과 배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